

원저

## 《傷寒論》 太陰病 提綱을 鍼灸學的 分證 및 分經의 運用方法에 關한 研究

정희민 · 윤종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 Abstract

#### The study on Acupuncture Operation Method of 《Sang Han Lun(傷寒論)》 Liu-Jing-Bian-Zheng(六經辯證)

- Based on the Study of Tai-Yin-Bing(太陰病) -

Jeong Hoe-min and Yoon Jong-hwa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The following study was undertaken in order to seek the acupuncture operation method of 《Sang Han Lun(傷寒論)》 Liu-Jing-Bian-Zheng(六經辯證).

Based on the documents quoted in 《Sang Hang Za Bing Lun · Xu Wen(傷寒雜病論 · 序文)》 of "Zhang, Zhong-Jing(張仲景)", the relativity of the theory of Jing-Mai(經脈) and Liu-Jing-Bian-Zheng of convalescence, and from the Liu-Jing-Bing(六經病), the origin and implication that caused Tai-Yin-Bing(太陰病) to form was studied on the basis of acupuncture medicine publications and the commentary writing of 《Sang Han Lun》.

As a result of the foregoing study, the author has written the following acupuncture operation on the basis of a summarized Tai-Yin-Bing for 《Sang Han Lun》 Liu-Jing-Bian-Zheng.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접수 : 2004년 11월 15일 · 수정 : 2004년 11월 29일 · 채택 : 2004년 11월 30일  
· 교신저자 : 윤종화, 경북 경주시 용강동 357번지 동국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침구과  
Tel. 017-802-2624 E-mail : item0916@chol.com.

**Results :** 《Sang Han Lun》 Liu-Jing-Bian-Zheng has succeeded and was developed based on Liu-Jing-Fen-Zheng(六經分證) of 《Su Wen · Re Lun(素問·熱論)》. In addition, the summary of Liu-Jing-Bing became the general principle of Fen-Jing(分經) and Ding-Zheng(定證) that may be applicable to Fenghan(風寒), Wenre(溫熱), Lili(疫癘) and Zabing(雜病).

2. Most commentators of 《Sang Han Lun》 in the Song, Ming and Ching Dynasties of 《Sang Han Lun》 interpreted the Tai-Yang-Bing in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aspects of Rong-Wei(榮衛) as the disease of the spleen meridian.

3. From the Liu-Jing-Bing of 《Sang Han Lun》, the region of acupuncture treatment of Tai-Yang-Bing is treated with the needle from the point of view of Bing-Zheng-Lun-Zhi(辨證論治) with the basis of the important region of acupuncture of the spleen meridian.

**Key words :** 《Sang Han Lun》, Liu-Jing-Bian-Zheng, Tai-Yin-Bing, the summary of Liu-Jing-Bing

## I. 緒 論

先秦의 馬王堆 出土 醫書 중 《足臂》 《陰陽》 및 《脈法》에서 經脈의 路線, 經脈病候, 經脈診斷 및 灸 刺絡의 治療法이 最初로 記載되어 있고<sup>1-3)</sup>, 漢代의 《靈樞》에서는 經脈에 解剖·生理·病理理論을 導入하여 循環路線의 確立, 經脈病候의 擴大, 三陰三陽에 따른 人迎寸口脈診法 및 鍼을 중심으로 灸, 刺絡, 藥物 등을 利用하여 治療하는 經絡學說이 堅立되었다<sup>4-5)</sup>.

《素問》 《靈樞》에서 鍼灸學과 醫論의 兩面에서 成就를 이루었지만 多樣한 技術이나 理論이 體系化되지 않았으며, 東漢의 《難經》에서 脈學, 經絡, 臟腑, 疾病, 穴位 및 鍼法을 體系의 으로 論述하였고, 獨取寸口脈診法, 左腎右命門說, 奇經八脈, 五輸·原·八會·俞募穴 및 補瀉法 등의 鍼灸에 關한 學說과 <五十八難>의 傷寒은 中風, 傷

寒, 濕溫, 熱病, 溫病을 包含하는 “廣義傷寒說”을 闡發하였다<sup>6-7)</sup>.

東漢 末年에 湯液中心으로 著述된 《傷寒雜病論》은 漢末의 戰火로 逸失된 것을 晉의 太醫令 王叔和가 醫書を 收集하고 整理하여 《脉經·卷七》에는 汗, 吐, 下, 和, 灸, 刺, 水 및 火의 治法에 따라 “可” “不可”의 次例로 轉載되어 있으며<sup>8)</sup>, 《千金翼方·卷九·卷十》의 唐本傷寒論<sup>9)</sup>, 北宋의 校正醫書局의 校訂 後에 《傷寒論》과 《金匱要略》으로 分卷되었고<sup>10)</sup>, 宋 以後의 《傷寒論》의 研究는 王叔和의 編輯이 있다고 여겨 加筆 혹은 增補한 部分을 削除, 修訂 및 註釋을 하여 《傷寒論》의 本來의 모습으로 復原하는 것을 目的으로 “錯簡重訂” “舊論守護” “辨證論治” 등의 學術類派가 形成되었다<sup>11)</sup>.

한편 《傷寒論》의 研究에 있어 朱<sup>12)</sup>는 “傷寒의 治療에는 먼저 經絡을 알아야 하고 經絡을 알지 못하면 邪氣의 所在를 알 수 없다.” 하였고, 柯<sup>13)</sup>는 “六經提綱과 六經地面說을 提唱하여 《傷寒論》의 六經과 《素問·熱論》의 六經이 모두

辨證論治의 綱領으로 相當한 差異가 있다.” 하였고, 山田<sup>14)</sup>은 “宋 以後의 《傷寒論》의 文獻 및 醫學的인 研究의 主題는 《傷寒論》 屬에 內藏된 醫學的 方法 즉 六經辨證으로 불리는 診斷 및 治療의 方法을 確立하는 過程이었다.” 하였다.

이에 論者는 《傷寒論·序文》<sup>15)</sup>에서 引用한 文獻과 內容으로 《素問》 《靈樞》의 經脈理論, 經脈病候의 諸篇 및 《難經》과 《傷寒論》의 相關關係의 考察은 經絡學說의 認識深化와 《傷寒論》을 鍼灸學的 運用方法의 探索에 必要하다고 思料되므로 《傷寒論》의 六經病 중 太陰經 提綱<sup>16)</sup>의 鍼灸學的 分證 및 分經의 運用方法으로의 可能性을 研究하여 報告합니다.

## II. 本 論

### 1. 三陰三陽의 意義

陰陽은 觀物取象으로 分類하는 方法이며 《素問·陰陽離合論》 “日爲陽 月爲陰” 하여 日月을 陰陽으로 나누고 《素問·天元紀大論》 “陰陽之氣各有多少, 故三陰三陽也” 하여 氣의 多少가 分類의 基準이 되며 陽分은 太陽 陽明 (兩陽合明, 兩火并合) 少陽으로 多少 盛의 三極이 形成되고, 陰分은 太陰 少陰 厥陰 (兩陰交盡, 至絶作朔晦) 으로 多少 衰變의 三極이 形成 되고, 《素問·至眞要大論》 “氣有多少, 異用也” 하여 氣의 多少에 따라 三陰三陽은 機能에 差異가 생긴다고 하였다.

先秦의 三陰三陽說의 形成의 史料는 馬王堆 出土 醫書 중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에서 有力한 證據를 提供하고 있으며, 馬<sup>17)</sup>는 “兩部古灸經은 《黃帝內經》의 祖本이며, 泰陽 (或鉅陽), 少陽, 陽明, 少陰, 脊陰(或厥陰)으로 命

名된 經脈이 있고 最初로 三陰三陽의 述語가 既述되어 있다.” 하였다.

《黃帝內經》의 三陰三陽은 天時變化, 天人關係, 臟象, 經絡, 氣血, 形志, 診療, 脈象, 病能 및 標本 등의 醫論에 貫通되어 있으며<sup>16)</sup>, 《黃帝內經》과 中古醫籍 中에서 不同한 三陰三陽의 29種 9大類의 經脈生理特證 및 層次類 氣血盛衰類 氣血多少類 病理反應類 脉診部位類 日旬年의 週期類의 過去 現在 未來 및 晝夜變化를 포함하는 天人地의 相互交感, 自然界의 氣候變化에 따른 歷法 및 臟腑經絡의 定性 定位에 따른 氣血盛衰의 變化 등은 모두 三陰三陽을 經緯로 編成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sup>18)</sup>.

《素問·皮部論》에는 皮部를 三陰三陽의 經脈을 基本으로 分區하고 外邪가 皮部에서 臟腑로 이르는 傳變을 論述하였고, 《素問·陰陽離合論》에는 光明(心臟)을 중심으로 上下 前後 內外으로 區分하여 三陽의 太陽, 陽明, 少陽의 部位 및 三陰과 太陰, 少陰, 厥陰의 部位를 分區하였고, 《素問·陰陽離合論》과 《素問·皮部論》에는 陰·陽氣의 多少에 따른 三陰三陽 經脈의 機能을 開闔樞로 說明하였고, 《靈樞·根結》에는 開闔樞의 病理와 證候를 既述하고 있고, 《素問·熱論》에는 三陰三陽의 經絡으로 外感 熱性病의 傷寒症狀를 六經으로 分類한 六經分證, 并病 및 死證에 관하여 論述하고 있다.

한편 陰陽은 宇宙萬物을 對象으로 하는 兩大分類이고 三陰三陽은 事物의 屬性에 對한 分類로 各各은 三으로 分類하는 方式이며 經絡의 三陰三陽說은 “三陰三陽의 開闔樞說” 과 “三陰三陽의 外感熱病說” 의 二種類가 있으며<sup>18)</sup>, 姜<sup>19)</sup>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은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淵源이며 《傷寒論》의 六經辨證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을 基本으로 하여 深化하고 發展시켜 體系化되었다.” 하였고, 南京<sup>20)</sup>은 “《素問·熱論》의 六經은 分證의 綱領이고 《傷寒論》의 六經은 辨證의 綱領이다.” 하였다.

그리고 三陰三陽은 馬王堆 漢墓 帛書에 처음 轉載되어 있고 《黃帝內經》에서 三陰三陽의 理論은 더욱 發展되고 完備되었고 《傷寒論》에서 理論과 臨床에서 飛躍으로 發展하게 되었고 理法方藥에 貫穿되는 辨證論治의 診斷 및 治療方法이 形成되었다<sup>16)</sup>.

## 2. 太陰病 提綱의 源淵

《傷寒論》의 제273조 “太陰之爲病,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 若下之, 必下結硬.” 을 太陰病의 提綱으로서 《注解傷寒論·辨太陰脉證并治法上第五<sup>21)</sup>》에서 太陰病의 첫 條門으로 記載하였고, 《傷寒論條辨·辨太陰病脈證并治上篇第一<sup>22)</sup>》에서 太陰病 提綱의 雛形을 隱匿하고 있으며, 《尙論·太陰病証治大意·太陰經全篇<sup>23)</sup>》에서 太陰病의 證과 脈의 要綱으로 說明하였고, 《傷寒來蘇集·傷寒論注·太陰脉證<sup>13)</sup>》에서 裏陰證의 此條를 太陰病 提綱이 된다 하였고, 《醫宗金鑑·訂正中景全書·傷寒論注·辨太陰病脈證并全篇<sup>24)</sup>》에서 太陰病의 脈·證을 包括하는 太陰病의 概括로서 此條의 位置를 格上시켰고, 陳<sup>25)</sup>는 “太陰病의 脉과 經氣를 言及한 經脈病으로 「太陰經脈經氣說」로 標本中氣의 從化理論과 開闢樞의 氣化學說로 說明하고 太陰病의 總綱이다.” 하였다.

《傷寒來蘇集·傷寒論注·全論大法第一<sup>13)</sup>》 “仲景作論大法, 六經各立病機一條, 提揭一經綱領, 必擇本經至當之脉證而表章之.” 하여 “六經提綱說” 을 提唱하였고 “六經病의 提綱은 傷寒과 雜病을 合한 論旨이다.” 하였고, 《傷寒貫珠集·太陽正治法·太陽病脉證三條<sup>26)</sup>》에서 “…… 故柯氏目爲六經之綱領, 而此則爲太陽之綱領也. ……; 學者當參合他條, ……” 하여 六經의 各條는 各經의 脈과 證을 既述하고 있다는 “六經提綱說” 을 認定하고 提綱에는 不足한 점이 있어 他條를 合參하여야 한다 하였고, 《傷寒約編·太陽證提綱<sup>27)</sup>》에서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을 無論하고 太陰經에 病

이 罹患되는 綱領으로 分經·定證의 基準이 된다.” 하였다.

## 3. 太陰病 提綱의 研究

(原文) 太陰① 之爲病, 腹滿而吐②, 食不下③, 自利益甚④, 時腹自痛⑤.

若下之, 必下結硬⑥. (273)

尺寸俱沈細⑦ 者 太陰受病也. 當四五日發, 以其脉布胃中, 絡于噤, 故腹滿而噤乾. (91)

(解釋) 太陰에 病이 들면, 脈象이 浮하고 頭部와 項部가 嘔嘔하고 아프며 오싹오싹하게 寒氣를 느끼는 症狀이 나타난다.

(註解) ① 太陰 : 吳<sup>22,24)</sup>는 “太陰은 脾經이다” 하였고, 楊<sup>28)</sup>은 “太陰은 手太陰肺와 足太陰脾經을 包含한다.” 하였고, 姜<sup>19)</sup>은 “太陰은 手太陰肺經과 足太陰脾經을 包含하며, 《傷寒論》의 太陰은 足太陰脾經에 重점을 두고 있다.” 하였고, 黃<sup>29)</sup>은 “《傷寒論》에서 手經과 足經은 同氣相求하며 足經은 身體에서 分豁된 部位가 크고 길며 氣가 旺盛하여 足經의 病이 深하고 手經의 病은 經하므로 足經으로 言及한 緣由이다.” 하였다.

②-⑤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 : 成<sup>21)</sup>은 “太陰의 病은 陽邪가 裏部로 傳變된 것이며, 太陰脉은 胃中으로 넓게 퍼져 있으며 邪氣가 壅滯되면 腹滿하고, 上에 下로 下降하지 못하면 嘔吐하며 飲食이 下降하지 못하고, 下에서 上으로 上升하지 못하면 自利한다.” 하였고, 喻<sup>23)</sup>는 “腹滿 自利는 太陰本證이고 吐而食不下는 邪가 上을 壓迫하는 것이고, 利甚而腹痛은 下를 壓迫하여 上下가 交亂한 症狀이다.” 하였고, 龐<sup>22)</sup>은 “太陰은 脾經이며 《靈樞·經脈》의 脾經流注 路線과 是動病 중 舌本強 食卽區 胃脘痛 腹脹, 是主脾所生病의 舌本痛 體不能動搖 食不下的 症狀은 모두

脾가 胃와 合併되어 나타나는 症狀이고, 自利益甚은 脾苦濕病이며 脾가 收穀의 清濁을 分離하지 못하여 胃가 津液을 運行하지 못하는 症狀이고, 時腹自痛은 足太陰之別의 公孫에 邪氣의 襲滯으로 腸中絶痛한다.” 하였다.

柯<sup>13)</sup>는 “太陰은 開經으로 陰道는 虛하고 太陰은 脾에서 所生하는 病을 主治하며 脾는 主濕 主輸하며, 腹滿時痛과 吐利의 症狀은 裏虛의 症狀이며 濕이 外로 넘치는 症狀이며, 脾虛하면 胃虛하고 食不下는 胃가 受納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고, 張<sup>30)</sup>은 “太陰病은 地氣가 不升하여 自利 自痛하며, 太陰이 中焦에 位置하고 있고 脾가 胃로 上에서 相交하지 못하여 腹滿하고, 胃가 下에서 脾와 相交하지 못하여 吐하고, 脾胃가 相通하지 못하여 食不下하며, 濕氣가 下注하여 自利益甚하며, 脾絡不通하여 時腹自痛한다.” 하였고, 西<sup>27)</sup>는 “太陰은 三陰의 裏이며 陰中至陰으로 寒濕에 傷하여 腹滿吐利하고 太陰脈은 自足入腹하며 寒氣가 時上하면 腹時痛 食不下한다.” 하였고,

黃<sup>29)</sup>은 脾病으로 清陽이 不升하여 脾病이 胃에 累及하고 胃病으로 濁陰이 不降하여 中氣凝滯하면 腹滿하며, 胃氣가 上逆하면 吐하고 逆氣하여 不納하면 食不下하고, 脾氣가 下陷하면 自利하고 清陽不升하고 下에 寒이 生成되어 收穀이 消化가 되지 않으면 自利益甚하며, 濕寒이 鬱塞하면 木氣가 不舒하여 脾土를 克하면 時腹自痛한다.” 하였고, 姜<sup>19)</sup>은 “太陰脾臟은 土에 屬하고 性은 濕이며 主運化 司大腹하며 太陰病은 脾陽虛衰로 運化失職하고 寒濕內盛하여 濕盛氣滯하면 腹滿하고 脾虛不運하면 食不下하고, 升降失常하여 濁陰不降하면 嘔吐하고, 清氣不升하면 下利하고 脾虛가 甚하면 下利가 더욱 甚하고, 寒이 脾絡에 凝滯하면 時腹自痛한다.” 하였고, 南京<sup>20)</sup>은 “太陰病은 脾虛虛寒證이 많고, 脾는 大腹을 管理하며 脾虛하여 運化失常하고 寒濕이 不和하면 腹滿하며, 《素問·至眞要大論》 “諸濕腫滿 皆屬于脾” 는 太陰病 病理의 主要說明이며, 太陰 脾病이 胃에 影響

을 미쳐 虛寒의 氣가 上逆하면 吐而食不下하고, 脾陽이 下陷하여 不升하면 下利는 더욱 甚해 진다.” 하였다.

⑥ 若下之 必胸下硬滿 : 龐<sup>22)</sup>은 “足太陰之脈의 支脈이 復從胃 別走上膈 注心中하며 誤下하면 邪가 別脈에 凝聚하여 胸下結鞭한다.” 하였고, 柯<sup>13)</sup>는 “太陰의 腹滿을 實로 誤診하여 下法으로 治療하면 胸下硬鞭한다.” 하였고, 尤<sup>26)</sup>는 “太陰은 臟으로 滿而不實하여 下法을 施術하면 胸下結硬하며 中氣가 傷하여 邪氣가 結한다.” 하였고, 西<sup>27)</sup>는 “腹滿을 實證으로 誤認하여 下法을 施行하면 胃口가 受寒하여 胸下結硬한다.” 하였고, 黃<sup>29)</sup>은 “太陰病의 腹滿에 下法을 施行하면 土는 愈敗하고 胃는 愈逆하여 甲木의 降路가 壅碍하고 下行하지 못하여 胃口가 痞鬱하며 胸下結鞭한다.” 하였다.

⑦ 脉沈細 : 《傷寒論·傷寒例第三》의 제90조 “尺寸俱沈細者 …… 太陰受病也” 하였고, 柯<sup>13)</sup>는 “太陰에 陰邪인 寒濕이 侵襲하면 脉沈하며 沈은 裏部에 應하고 腹滿 吐利등의 症이 있다.” 하였고, 楊<sup>31)</sup>은 “沈診法은 重手하여 筋骨에서 按診하며 裏證의 虛實을 診候하고 尺寸이 俱沈細하면 太陰病이며 …… 沈脈의 要點은 陰陽寒熱를 決定하여 宜守不宜攻, 宜補不宜瀉에 있다.” 하였다.

《傷寒論》 제273조 “太陰之爲病,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 若下之, 必下結硬”의 太陰病 提綱의 腹滿은 吐한 後에 食不下하는 寒脹이며, 陽邪에 依한 腹滿은 吐하여 滿이 除去되면 食可下하며, 陽邪에 依한 下利는 作微作甚하며 痛症이 下利에 따라 輕減되고, 太陰의 下利는 愈甚하며 時腹自痛하고 腸虛하여 寒이 尤甚해지며<sup>19)</sup>, 不大便으로 滿痛하고 實熱이면 陽明에 屬하고, 下利로 腹滿時痛하고 虛寒하면 太陰에 屬하며<sup>13)</sup>, 脾와 胃는 같이 腹中에 있어 腹滿 腹痛이 同一하게 있

고, 腹滿은 太陰主病이고 心下滿은 陽明主病이며, 陽明腹滿은 熱과 同化되어 潮熱 自汗 不大便의 證이 있고, 太陰腹滿은 發黃 暴煩 下利腐穢의 證이 있고, 腹痛에 있어 時痛과 大實痛으로 虛實을 區分한다<sup>24)</sup>.

### III. 考 察

近年에 發掘된 醫學方面의 帛書, 漢簡 및 漢牘 중에서 馬王堆의 《足臂》, 《陰陽》 및 《脈法》에서 經脈의 路線, 經脈病候, 十二經脈脈診의 經脈診斷 및 灸 刺絡의 治療法이 最初로 記載되어 있으며<sup>17)</sup>, 《靈樞·經脈》에서 十二經脈의 循環路線, 經脈病候 및 人迎寸口脈診을 運用하였고, 《難經》에서 手太陰의 太淵穴 附近에서 五臟六腑를 診斷하는 六部定位脈診의 寸口脈診法에 依한 五輸穴을 運用하는 方法論을 提示하고 있다.

戰國 後期の 《五十二病方》의 處方에는 傷寒方面의 處方이 없고, 前漢의 《居延漢簡》에는 一個의 傷寒發汗治方이 있고, 東漢 初期의 《武威醫藥簡牘》의 《治百病方》에는 辨證論治의 雛形이 形成되어 있고 外感傷寒의 處方에 對한 前承後啓의 役割을 하였고<sup>11,32)</sup> 東漢 末의 張<sup>33)</sup>은 古代 여러 醫論과 다양한 經方을 參考하고 臨床經驗이 結合되어 《傷寒雜病論》 十六卷을 著述하였다.

現存하는 《素問》의 <熱論> <平熱論>, 《靈樞》의 <熱病篇> <寒熱病篇> <寒熱> 등의 外感熱病의 專門的인 論述, 《難經》의 <五十八難> 廣義傷寒說, 脈診 및 汗下法의 可·不可 등, 先秦 및 秦 漢代의 藥物知識이 總結된 《神農本草經》의 全身인 《胎臚藥論》 및 《漢書藝文誌》의 經方의 方劑 등은 《傷寒論》의 著作에 撰集되고 選用된 醫學理論 및 先驗方劑의 根據을 提供하고 있다<sup>34)</sup>.

한편 《素問》 《靈樞》의 經脈理論·經脈病候, 《難經》의 脈診法과 針灸理論 및 《傷寒論》의 六經病의 脈과 證의 相關關係의 研究는 《靈樞·經脈》의 經脈病候와 寸口脈을 相互補完하는 鍼灸療法의 運用 方法論에 對한 必要한 研究로 思料된다.

單<sup>35)</sup>은 “《傷寒論》은 臟腑 經絡 및 氣化學說이 融合되어 辨證論治의 體系가 貫通되어 있다.” 하였고, 楊<sup>38)</sup>은 “《傷寒論》의 六經氣化의 實在은 手·足三陰三陽經의 經絡氣化學說의 反映으로 …… 標本中氣의 從化理論과 開闢樞의 氣化學說은 傷寒六經氣化의 整體理論이며 縱橫으로 傷寒 六經間의 相互關係를 闡述하고 있다.” 하여 《傷寒論》은 經絡學說과 密接한 連貫性이 있음을 說明하고 있으며, 吳<sup>36)</sup>는 “用藥은 《傷寒論》의 六經分証으로 治病하고, 用鍼은 《奇經八脈》의 八脈交會八法으로 治病한다.” 하였고, 또 “鍼灸와 藥物의 治病의 原理는 一致하며, …… 用藥은 三因(外人 內因 不內外因)을 區分하여 治療하고, 用鍼은 三因의 區別없이 何經의 寒熱虛實을 살피 施術을 한다.” 하여 鍼灸와 藥物治療의 差異點을 說明하고 있다.

《傷寒論》의 제273조 “太陰之爲病, 腹滿而痛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 若下之 必心下硬結也.” 의 太陰病 提綱을 人體 內部를 主管하는 足太陰脾經의 病으로 脾胃의 燥濕 및 升降의 生理·病理의 面에서 註釋하고 있으며, 柯<sup>13)</sup>는 “腹을 三陰의 夾界로 삼아 「自腹及二腸魄門」을 太陰地面(六經地面說)으로 새롭게 解釋하고, 太陰은 裏部를 主管하며 <陰陽離合論> “太陰主開”는 太陰이 收斂의 精微인 津液을 全身에 運化 敷布하는 功能이며 「腹滿而痛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의 濕의 鬱滯로 因한 裏證의 症狀이 太陰病의 提綱이 된다.” 하였고, 姜<sup>19)</sup>은 “太陰脾臟은 土에 屬하고 性은 濕이며 主運化 司大腹하며 太陰病은 脾陽虛衰로 運化失職하고 寒濕內盛하여 濕盛氣滯하면 腹滿하고 脾虛不運하면 食不下하고,

升降失常하여 濁陰不降하면 嘔吐하고, 清氣不升하면 下利하고 脾虛가 甚하면 下利가 더욱 甚하고, 寒이 脾絡에 凝滯하면 時腹自痛한다.” 하였고, 西<sup>27)</sup>는 “此條를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을 無論하고 太陽經에 病이 罹患되는 綱領으로 分經·定證의 綱領이 된다.” 하였다. 그러나 《傷寒論》 六經의 構成은 太陽病중에 手太陰經과 肺臟病症이 包含되어 있으며, 太陰病에는 太陰經과 脾臟病症 뿐이고, 小腸은 陽明에 隸屬시키는 《內經》의 構成體系와는 차이점이 있다.

19 C 末葉의 朝鮮의 李<sup>37)</sup>는 《傷寒論》을 爲 主로 金元四大家 및 明代의 醫家들의 醫論을 窮究하여 四象人의 臟腑性理에 따른 生理 病理 診斷 및 治方의 理致를 論述한 著述인 《東醫壽世保元》에서 《傷寒論》의 太陰病·陽明病·少陽病·太陰病·少陰病·厥陰病은 病證의 名目이며, 太陽人·少陽人·太陰人·少陰人은 人物의 名目으로 兩者의 關係를 混同하지 않도록 깊이 洞察하여야 한다하였고, 《傷寒論》의 六經病 중에서 三陰病證은 少陰人病證, 少陽病病證은 少陽人病證, 太陰病病證과 陽明病病證은 少陽人·少陰人·太陰人의 病證에 모두 있다하여 歷代 《傷寒論》 研究의 主題인 症狀分類 中心의 六經辨證에서 사람(四象人)中心의 八種類의 臟腑病理論을 中心으로 하는 症狀分類로 轉換하는 契機가 되는 醫論을 提唱하였다.

向後 鍼灸療法の 研究方向도 《傷寒論》의 六經分證에 따른 症狀中心의 針灸治療 혹은 方劑에 따른 針灸處方의 構成하는 方法에서 사람(四象人)의 臟腑性理에 差異에 따른 鍼灸療法の 研究로 方向轉換이 必要할 것으로 생각된다.

## IV. 結 論

《傷寒論》의 六經病 중 太陰病 提綱의 形成된 淵源 및 鍼灸學의 分證 및 分經의 方法을 研究한 結論은 다음과 같다.

1. 《傷寒論》의 六經辨證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을 基本으로 繼承하여 發展되어 經絡學說을 利用하여 六經病의 解釋하였다.
2. 《傷寒論》 六經病의 提綱은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에도 分經 定證의 綱領으로 適用이 可能하며, 太陰病의 提綱은 足太陰脾經의 病으로 燥濕相濟 및 升降의 失調로 因한 生理 및 病理의인 側面에서 解釋하여 鍼灸學의인 分經 및 分證에 應用할 수 있다고 思料된다.

## V. 參考文獻

1. 이정훈, 윤종화. 足臂十一脈灸經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8 ; 15(1) : 1-200.
2. 이정훈, 윤종화. 馬王堆 出土 醫書 中 陰 陽十一脈灸經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6 ; 16(2) : 139-179.
3. 서용원, 윤종화, 김갑성. 馬王堆 出土 醫書 中 《脈法》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1) : 210-224.

4. 황민섭, 손성철, 배대영, 김갑성, 윤중화. 古代經脈病症體系에 있어 “是動則病”과 “是主某所生病”에 關한 研究. 2002 ; 19(2) : 14-27.
5. 신광순, 장준혁, 윤중화. 《靈樞·經脈》의 寸口人迎脈診에 關한 研究. 2002 ; 19(1) : 210-214.
6. 凌耀星. 難經校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1 : 146-150.
7. 啜霖. 難經正義.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 94-102.
8. 福州市人民醫院. 脈經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4 : 7, 344-485.
9. 錢超尖. 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 中國中醫學出版社. 1994 : 1-332.
10. 劉渡舟. 傷寒論臨證指要. 北京 : 學苑出版社. 1999 : 2-4.
11. 啜發正. 傷寒學術史. 武昌 : 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5 : 9-14, 90-130.
12. 朱肱. 著. 임진석 옮김. 活人書. 서울 : 아티진. 1998 : 1-19.
13. 柯琴. 傷寒來蘇集.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 119, 162-166, 178-198.
14. 山田慶兒. 著. 전상운, 이성규 옮김. 중국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서울 : 사이언스북스. 2002 : 178.
15. 啜橋泉. 收藏. 古本康平傷寒論. 長沙 :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8 : 1-3.
16. 李心機. 《傷寒論》疑難解讀.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9 : 40-41, 51-52, 69-76.
17.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 12, 321-652.
18. 王玉川. 運氣探秘. 北京 : 華夏出版社. 1995 : 6-9.
19. 姜建國, 李樹沛. 傷寒析疑. 北京 : 科學技術出版社. 1999 : 21-23, 327-331.
20. 南京中醫學院傷寒教研組. 編著. 傷寒論 譯釋.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0 : 2, 908-912.
21. 成无己. 注解傷寒論.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66 : 153.
22. 龐有執. 欽定四庫全書 子部五醫家類·傷寒論條辨. 서울 : 大成出版社. 1995 : 775-772.
23. 喻嘉言. 喻嘉言醫學全書·尙論. 北京 : 中國中醫學出版社. 1999 : 78.
24. 吳謙等. 編. 醫宗金鑑.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6 : 10.
25. 陣恭薄. 近代中醫珍本集·傷寒論章句.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4 : 237.
26. 尤怡. 傷寒貫珠集. 北京 : 中醫古籍出版社. 1998 : 2-3.
27. 西大椿. 西大椿醫學全集(上冊)·傷寒約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8 : 807, 894.
28. 揚力. 中醫運氣學. 北京 :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 : 203-206.
29. 黃元御. 黃元御醫書全集·傷寒說意.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0 : 60-61, 193-194, 539-541, 605.
30.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傷寒論集注.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689.
31. 楊瑋. 傷寒瘟疫條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6 : 7-8.
32. 山田慶兒. 新發現 中國 科學史資料의 研究·譯註篇. 京都 : 中村印刷株式會社. 1976 : 363-404, 405-416.
33. 張中景. 中景全書·傷寒卒病論集. 서울 : 大成文化社. 1984 : 20-21.
34. 班固. 著. 李世烈. 解譯. 漢書藝文誌. 서울 : 자유문고. 1995 : 306-321.
35. 單玉堂. 傷寒論針灸配穴選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8 : 22-26, 36.
36. 施士生. 校釋. 吳昆. 著. 針方六集校釋.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1 : 271-316.
37. 韓東錫. 著.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 誠理會出版社. 1967 : 117-122.